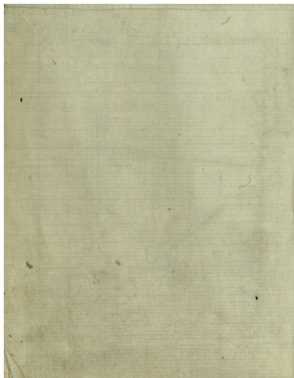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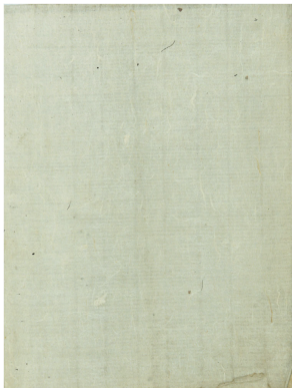


國語









대한국의 문법

말과 글

일문 말이 무엇이요

답 뜻을 표하는 것이나 다

이문 말이 쓸데가 무엇이요

답 인류가 서로 인연 되여 사는 그로 그 뜻을 써
로 통하여야 할 것인디 말은 그 뜻을 통하
는 데 쓰는 것이나 이다

주시경 씨

삼문 말로 뜻을 엿더께 달은 사람에게 통하

노요

답 말은 곳 뜻을 구별하여 표하는 소리니 그

소리로 말은 사람에게 천하노이다

소문 이 소리를 쳐 사람이 엿더께 알 수 잇노요

답 소리는 공기가 울니는 파동으로 퍼져나

가쳐져 사람 키 청을 울더듯는 경각으로 들
어가면 신아 새듯고 아노니 원어 통으로

바쁘하여 보지 못하니 이다.

오른 말을 쓰무슨 달은 것으로 남에게 통할

수잇나흐

답 글로 통할 수잇나이다.

류문 글은 무엇이냐

답 글은 말을 표하는 글이니이다.

칠문 글로 말을 달은 사람에게 었더게 통할 수잇

나흐

답글은보니 이포를 남에게 들어나고
에 빛쳐어 보노 정락으로 들어 가면 신이 깨
뜻고 알키이다 그런대로 글로 뜻을 통후나
소리로 뜻은 통후나 다 일반이니 글은 논
으로 뜻은 말이 아니라 글만 하고 말은 귀로 보
글이라 글만 후니이다

팔은
지금 류형지로 말을 답아 언제 면지 어 되
먼지 원후고 원어 통도 앓스니 글은 쓸데

가 무엇이든
답 뜻을 명하여 말을 만 뒤 이 간단 후 후 고
알기 쉽게 후 노법이 있고 남의 말 뜻을 잘
알아 보는 법이 있 노 뒤 이 두 법을 잘 후 라
면 글 만 후 것 이 험 스 며 넓 니 려 고 오 래 전
후 기 도 편 리 후 기 가 글 만 후 것 이 험 노 이 다
구문 이 세 상 글 이 들 무 스 두 분 별 이 이 스 노 고
하나 는 말 로 나 소 리 를 표 후 여 말 을 구 립

것인뒤우리나라 국문과 글은 것들
이요 하나는 그림이니 말은 상 관 업 시
무슨 뜻은 무슨 뜻으로 그린 것인 뒤 지나
글 글은 것들이 니 다

심문 그 두 모양 글 들 승 예 어 는 것이 더 편
리 하고 만 이 쓰 이 며 어 는 것이 덜 편 리
하고 적 게 쓰 이 는 고

답 말 표 는 글 이 못 말 인 고 로 편 리 하고

만 이 쓰 이 며 그 림 은 말 외 에 써 로 더
출 것 인 고 르 덜 편 리 후 고 적 제 쓰 이 는

이 다

심 일 문 글 은 무 손 유 익 으 로 잘 연 구 후 여

밖 을 수 밖 에 없 는 고

답 사 람 은 글 이 잇 는 고 로 이 글 로 귀 지 헤

넙 나 고 를 쓰 지 헤 의 효 형 을 잘 이 루

제 후 느 고 로 은 편 리 법 도 와 제 작 무 역 이

점 = 천연리인 평과 심화한 범절에 적당
후도록 정강 흥진 후고 금슈는 글이 업
슴으로 그 지혜를 넓니고 그 지혜의 효
험을 잘 이루지 못하여 옛날까지 집
이 지음까지 집과 글고 지음의 호글이 옛
날의 호글과 글으니 지혜로 다 못느이
세상에 서지혜를 넓니는 이 글을 잘
연구하여 막지 안이 할수 업는다

이 업을 썬 안이라 도로 허 번 참 하여 큰
페를 짓는 이다

십수문 달은 나라 사람에게 도 이 나라 말
을 가루 치면 엇더 호호

답 그리 후면 내 뜻을 그 사람에게 통하
고 그 사람의 뜻을 내게 통하여 이사
회 없게 되어 그 유익 이 만 오니 이다

삼오문 말이 사 회에 무슨 상 관의 잇는 고

답 말의 달은 죄 자연 사회도 달은고 말의

큰은 즉 자연 사회도 큰아 지는이다

설류 달은 나라 사람에게 이 나라 말을 잘
문

가 두히고 잘 못가 두치는 더 그 유익의

동분이 었더 호 노

답 잘가 두치면 그 뜻도 잘 통 하여 그 더로

유익이 만코 잘 못가 두치면 그 뜻도 잘

통치 못 하여 그 더로 유익이 적 으며 이

나라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분유 뒤로
효행이 있는 이다 이럼으로 사회를
잘 함 후라면 또 다른 말을 잘 다루아 잘
가르치고 잘 배화야 잘 되겠는 이다

십
문

이 나라에 업는 말이 달은 나라에 있
스면 잇지 흠이 조음으로

답
그 말을 이 나라 말로 쓰던 지 그 말 뜻
으로 특별히 새 말을 만 뒤 이 조음으로

이나라에 그런말이잇는것을알리
못하고도더는것은불가하니이
다그런고로이나라말을잘안지못
후면이런죄가만으니이다

문심판

이세상에말이모도몇가지나잇는부

답

삼천여가지가잇는이다

문심판

그중에넙나힘하는말이몇가지

나되노호

답 괘심여가지나이다

이십 문 이여러말의큰구분이엇이후

답 셋인디하나논알타이통어나아세

아통북켄에말종류요하나논아리

안통어나구라과화인도말종류

요하나논세미지크통어나아세아

씨런말종류나이다

이십 문 이십일 말이세력에무슨생판이잇노도

답 제력이 성대하면 그 나라 말이 존연
성령 후고로 전세라던 국과 처
반아와 불란 처 말이 고제간에 통용
되었고 후에 노영어와 익어가 성
행하더니 지금 은 각국이 존연
나라 말로 주장하여 국제에도
존연 나라 말을 쓰노이다

이십이
문

남
말저던이 엄스면 그분 별한 여 녀영호
뜻을 증거 할바 이 엄숨으로 산느길
이여 일히 못하 고 일어 부리 나말이
만으나이다

우리 나라 글은 말소리를 표현한 것
인고로 이알에 소리가 무엇인가

문답

소리 (음학)

일문 소리는 그 근본이 무엇이고

답 지운이 너이다

이문 지운이 엇더케 소리가 되느냐

답 지운이 동향하여 타던 자 부딪으면

소리가 되느냐이다

삼문 기운이 지운이 리부딪어 쳐 소리

가 나느냐고

답
그러하니 이다 바람 소리와 연동
소리가 다 저운 세리 부딪어 서 소리
가 되느 것이 니 이다

스문
저운이 물전에 부딪어 서 소리가 나

느노

답
저운이 부딪어 서 소리가 나 지안이 후

느물전에 업스되 얹고 견강호물

스전에 부딪으면 소리가 잘 나느 이다

오문 엇더케 되면 소리가 크게 나노고
답 지운의 동음이 크고 쌀으면 그 소리가
크고 또 부딪는 들은 천이 소리가 나기 예
척당호면 그 소리가 크게 되나이다

말소리의 엇더함을 이 알에 문답호
사람의 말소리 음이 다른 부
일문한문조음과 성聲의 달음이 부

잇이노

답
분별잇는소리를음이라하고분별

업는소리를잇는음이라하고오음五

음이라하고초중종성初中終聲

이라함은그음조와성조의쓰임이

달을것업스되풍聲風聲이라되성

雷聲이라하고오음五음이라함을

보면성음분별업는소리를나름

이 요음은 분별의 있는 소리를 지니름
이 나이다

이문 소리의 근본이 귀운나 사람의 말
소리는 무는 귀운으로 되나고
답 호흡하는 귀운으로 되나이다
살문 말소리가 어 뒤쳐 나나고

답 폐에서 청관으로 나오나이다
스문 이 소리가 엇더하니 무엇이라 하

깃노노

답이 소리가 분별이 없스니 성이라
후깃노이다

오문 분별잇는 말 소리는 무엇이요

답 성관으로 나오느 성이 입으로 나올
새에 아설 순치 후牙音唇齒喉로
분별을 만들어 되느 소리니이다

육문 우리나라 말은 세 소리라느 것은 첫더러
것을니느 것이요

답 분별잇는 것파 성노 것을 통칭
노 것 이 니 이 다

칠문 음에 무는 두 분별이 잇는 두
답 모음 母音 파 조음 子音 의 두 분별이
잇는 이 다

잘문 모음은 무 것 이 노

업스 노 말 조음 이 니 모든 음의 근본

이 니 이 다

구문 모음에 무슨 분별이잇는고

답 모음은 고하장단 高下長短이 분별

이잇는이다

십문 즘음은 무엇이오

답 그음은 저지 ㄱ ㅌ 스 ㅍ 로 발은 ㄱ 지 ㅍ

ㄷ 고 모음에 의 부 ㄴ 후에 야 고 소

리가 나 는 것이 니이다

십일 즘음에 무슨 분별이잇는고

문

답
저음은 청탁 경중 淸濁輕重의

분별이 있노이다

이과 평은 국문은 공부 후는 거짓인

고로 이알에 국문만 들신 소력을대

강문답습

• 국문을만 들심

이문 국문을누가만 들섯노고

답 아조 세종대왕께서 만든 첫노

이다

이문 세종대왕께서 국문을 엮어 더께만

도록 썼노요

답 세종대왕께서 각국이 다 큰 자를

만들어 각그나라말을 기록하시

우리나라는말을 기록하시노라이업

음을근심하시금증에 국문형을

고철림후지고신숙주申叔舟와성삼
문등成三問등을명후샤고원古篆
과범不梵字를의방후여국문을친
히만돈샤일름을훈민정음해民正
음이라후시키고이십팔년병신에충외
에반모후시너무손말이던지거룩
지못홀소리가업고
도형삼문등을명후샤료등에귀양와

잇는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黃瓚에
제보내여 음운音韻을 질문케 하시니
왕위가 모도 열세 번이고

도홍무정음洪武正音의 모든 글자 음
을 다 국문으로 쓰셨나이다

삼문 세종대왕세에 어나 나라와 교통되
였나요

답 명나라와 몽고와 서장과 만주와 청

라와안남파일본과류구와그외여

러지방을교통하엿노이다

스문아동에데일조공은스업이부엇이노

답국문을만들심이니이다

오문세종대왕여척국문을만들실새에누

가못하시게하랴고하셔스노노

답집현년학사들과여러중신들이힘

써못하시게하셔스노이다

북문 세종대왕 서취 엿더 후신 남군이시

노

남 디국히성명 후신 남군이시

철문 세종대왕 서취 국문을만든신외에

여러사업 후신종대강이무엇이노

답 남으로왜구를물너치시고북으로야

인을진압후시고그후신을결근치후시

고집현년集賢殿을제위현비르

기루시고고금총신효조려너범반
을만호일을별아삼강행실三綱
行實과효행록孝行錄을만들어총
의에반포후사백성을가르쳐례외의
풍속이잇게하시그황명제감皇明誠
鑑을지어스스로경계하시그히평요람
治平要覽을지어고금치란_{고금개근술}을살
피시고근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와

고려사高麗史外紀方輿略治水要覽과
 群臣辨正歷代兵要外論什韻書오례
 의五禮儀外史記오경음의四書五
 經音解外친정천七政篇外모은
 려외曆書外악기樂器外측우의
 測雨器를짓으시고음경각欽敬
 閣을제우외련의인원의의상儀
 象을만들기나그리제가스스로리

고스스로 동후 여런이 일월도유와
사기결후슈야구각이호리호
를나리안이호고
인치를잘알야각 : 그오장을살
아쓰시고어진침사로슈야힘쓰고
도모호야나라를가스려태평분
명제호셔스노아

팔분 그해 주 분 단 동 시 노 일 을 돕 은 이

들이 누구오

답령상문충공그령인신유슈申叔

舟 男保閑 齊 舟 字廷翁 外손引츄문충공창녕

인철삼문咸三問 男梅竹軒 外령상문 字謹甫

정정공작녕인최충崔恒 男太唐子

과령상문정공하동인정인시鄭麟趾 男學易齊

등이니아 字西晴

세속소의 국문고서의 천함이 심이
서고서러천나의 국문을말함은
불소호나제호고문천치는못호고
국문은다 제속소 서제의심괄
사예근본되여들어쓰임이부호호
며지류기못호호사어업고의외에갈
은것은업호고로본제화세훈민정
음을의류호서국문 의근본을

言外州工部

訓民正音

御製 國之語音異乎中國與又字不相流通故

愚民有所蔽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為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
二 焉習復在日用身

一 牙音如君字初發聲并書如蜩字初

發聲

才牙音如快字初發聲

匕牙音如業字初發聲

匕舌音如斗字初發聲并書如單字初

發聲

匕舌音如吞字初發聲

匕舌音如那字初發聲并書如那字初

日唇音如那字初發聲并書如步字初

五發聲

工唇音如漂字初發聲

口唇音如彌字初發聲

不齒音如卽字初發聲并書如慈字初

發聲

ㄅ喉音如挹字初發聲

ㄆ喉音如虛字初發聲并書如洪字初

發聲

ㄇ喉音如欲字初發聲

己半舌音如閣字初發聲

△半齒音如穰字初發聲

、如吞字中聲

卞如卽字中聲

卞如侵字中聲

卞如洪字中聲

卞如暈字中聲

卞如君字中聲

十如業字中聲

止如欲字中聲

卩如穰字中聲

丌如戔字中聲

丌如驚字中聲

終聲復用初聲○連書唇音之下則

為唇輕音初聲合用則并書終聲、

半止丌止丌附書初聲之下丨丨十

蘇下才附書於右凡字必合而成音左
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

이상은 세종초역서만들진것인
디구정음의 잘못됨이 업노지

本朝世宗二十八年 御製訓民正

音 上以爲諸國各製文字以記其
本國之方言獨我國無之遂製字母二

十八字名曰訓民正音開局禁中
命鄭麟趾申叔舟成三問崔恒等
撰定之蓋倣古篆分為初中終聲
字雖簡易轉撰無窮諸語音文字
所不能記者悉通無礙中國翰林學
士黃璫時詢遼命東三問等見璫習
問音韻凡往來遼東十三度
禮曹判書鄭麟趾序訓民正音曰有

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固聲製字以通万物之情
以載三才之道而後世不能為也然
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者何
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假
中國之字以通其用是猶杓鑿之
鉏鋸也豈能達而無礙乎要皆各隨
所處而安不可強之使同也吾東方

禮樂文物倂擬中夏但方言俚語不與
之同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治獄者
病其曲折之難通昔新羅薛聰始作史
讀官府民間至今行之然而皆假字而
用或澁或窒非但鄙陋無稽而已至於
言語之間則不能達其萬一焉癸亥冬
我

聖上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

之名之曰訓民正音象形而字倣古篆因
聲而音協七調三極之義二氣之妙莫不
該括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簡而要精
而通故智者不崇朝而通愚者可浹旬而
學以是解書可以知其義以是聽訟可以
得其情字韻則清濁之能辨樂歌則律
呂之克諧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唳雞鳴狗吠皆可得而書矣遂

命臣等詳加解釋以喻人庶使觀者不
師而自悟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
之所能發揮也唯我

聖上天縱之性制度施為超越百王正音之
作無所祖述而成於自然豈以其至理之
然所不在而非人為之私也夫東方有國
不為不久而開物成智蓋有待於今日也

歟

資憲大夫行禮曹判書兼藝文館大提

學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

世子左賓客同知 經筵事臣鄭麟

趾序

훈민정회 訓民字會와 화동정음 華東

正音에 잇는 국문을 이 알에 등지훈

五音初聲

五音合二
變爲七音

角

牙音 丁 刁 乙

徵

音 ㄇ ㄟ ㄌ

變徵

音 半 ㄍ

己

洪武韵作 半徵 半商

商

音 ㄊ ㄨ ㄤ

羽

音 ㄐ ㄨ ㄛ ㄩ

宮

音 ㄨ ㄛ ㄩ

變宮

音 半 ㄍ

△

洪武韵作 半徵 半商

諺文初中終三聲辨

初終聲通用八字

丁

其 ㄌ

隱 ㄨ

七

未 ㄉ

己

ㄟ

口

音 ㄉ

眉

日

非 ㄉ

人

時 ㄨ

○

疾

未

兩字只取本

字之釋俚語為声

洪武韻文論大卦

其尼池梨眉非是異入音用初聲役隱末

乙音疑八音用

初聲獨用八字

刁治五文不而伊乘

亦取本字之
釋但語為声

中聲獨用本字

卜阿也十於余上吾止要下牛不由由

一應伊中思初

우에 세종여서친계각신훈민정음과 훈
몽조회와화동정음통척에잇는국문을
동록후나훈민정음에는각조음을모한
조소반정과글다후시고그부레에정형에도
초형을다시쓰라후섯스나어느조음조언
초정형에통용후라고후십이화중무의음
과조회와통척에는그口日人〇八조만
초정형에통용하고그口日人〇八조만

이 두 글은 들어냄은 세종하여서는 연연호음
뒤로 각 자음 들을 초종성 무론 후고無礙
通用제 후심인 뒤 소회에 至하여 기고스
스스호를 초형에 만쓰라 호음으로 만과
문자가 상좌 되어 큰 폐가 시작 됨을 들
어 변이로라

는 훈만 정음에 吞 소종형과 吞 다 후여 소
소 회와 통석에 思 不用 이라 후엿스서 吞 소

중성이나 思 不用 初聲 을 다 漢 음으로 考 解 호

주 一 一 의 합음이 요 卜 은 훈민정음에 單

중성이라 하였고 卍 회와 통척에 阿 라 하

역스니 單 중성과 阿 음을 다 漢 음으로

고히 훈주 卜 라 이럼으로 卜 라 不同 하

며 卜 가 一 一 의 합음임을 증명하여 근

래 의 卜 을 卜 와 卍 의 卍 음이 卍 음임을

말하여 내노라 卍 음이 卍 음임을 증명하여

내가십오세주문을 처음으로 공부할새
조희와 붓과 먹과 벼루와 칩은 선비의 쓰
는물건이라 호노말을 쓰고 본즉 붓먹벼
루침에는 파주요 조희벼루 두침에는 와
주라 그새 꼭성각나기를 파나와는 다도라
이두는 다眞書에及자의 뜻과 같은이 조
희붓먹벼루 칩주사이를련호른 석름이
어느웨이니 조말에는 와주가 쓰이고어

노 주알에 는 파 주가 쓰임은 무순 아달리인
가 후고 다시 살피 본 주 빛며 주 는 반침
이 잇고 조히 베투 주 는 반침이 업는지라
이에 반침 잇는 주덜에 는 파 주가 쓰이고
받침 업는 주덜에 는 와 주가 쓰임인가 후
고 이를 밀우어 달음말 드를 시험 후여
본 주 파연 그러 후고 드를 은 주 는 반침 잇
는 주알에 이 고 들 는 주 는 반침 업는 주

알에 쓰는 줄 알고 이끄는 이 말은 말드리는 것
더 상고하고 분석하여 본즉 근리극문쓰는
것이 말적석과 서로 틀려 그 법을 이르는
줄로 짐작하는 것이 만으나 정서언회와
여러 말은 완각 혼서 책들과 지금 사람의
국문쓰는 것이 혼이다 어러 혼으로 확실
이의 심심음은 연지 못하고 권고 어러 설
은 의 견을 잘 명할 수 업서 공혼마음

이취지안이 흠으로 자 조여 러 천성을 차아
보고 물으나 지답을 얻지 못하여 무슨 말
을 듣던지 무슨 문장을 보던지 조국문에
관계되는 무는 연류던지 과 회를 맛나 는 뒤
로 말과 글의 어더 흠을 생각하여 상고도
고 명어 앞바 벨과 일문가 나를 좀 해 호호
류구 만주, 몽고, 서장, 섬라, 인도, 파스, 아랍,
이금, 엿, 회부, 티글, 즈들, 파 구유, 각, 온, 글, 즈

들을 구하여 구경하고 영어 문법^{어법}을 좀 배

움은 다 국문 연구에 유익할 가 흠인디 우리

나라 말을 깨어 보는즉 다 되고 자 하도 이

종형으로 쓰여 노말이 만으 되 글에는 종

형으로 쓰지 안더 흠으로 말과 글이 생좌 되

어그말의 원테와 봄음과 범식이 잘 못되

어 혼잡하고 문리를 나리어 글이 글로 못을 주

지 못하노라 이 해에 큰이 공부하던 이와

달은 벗드러 이 나의 이름이 국부 공부 후는
것을 보고 말하되. 귀를 언문은 그 새 짓기 부
엇에 쓰겠기에 저 다지 알라 고 후 나 진서
업스면 언문은 쓸대 업고 진서 안이면 무스
일을 후겠노. 표진서 만 공부 후 면 고 만 이
라고 조를 후기에 내가 뒤 당 후기를 한 문
은 외국 글인 고로 공부 후 기 도어 령은 뿐
더러 한 문은 말과 글지 안이 후의 달의에

따르더공부하는것인고로더욱어렵고세
월을넘어허비하는지라 영미법영국같은
나라들은그나라말을모로그려글로쓰고
한문은구경도못하는것스되그부강문명중
이한문쓰는나라에양두치안이흔족우
리나라에서도국어로는상상하여힘은국
문을쓰면그편리함이무한하니라하나
스스로넘려힘은우리나라에국어전도

업고 국문 쓰는 것이 경위업스나 이를 경
장치안으면 국문발달 후지 못하리라 하고
그엇지 하여야 완전한 글이 되게 하는가 후고
상달과 글을 궁구하여 씻^洗발^度말^任맺^結
달^度초^從차^從중^好악^可제^可올^可아^可러^可게^可쓰^可이^可음^可은^可
줄알고 여러 벗에게 이르 함을 보이고 이러
게 써야 법식이 올림을 풀어 말^나채^르용
람을 얻키 못하노자라 그러나 저희대로이

를 충상 말하고 또 왜 - 저를 - 조와 들이 너
는 지 더욱 크게 의심나논지라 성왕이 편
리 후 더욱 문조를 깎단 후 게 짓으시매 왜 큰
은음을 하나인 돌점만 들섯느리 요이 는
는 필연 그러차 안은면 유가 잇슬이라 후 여
김이 궁구 후 고 너 럼 리 람 지 후 되 이 내 알지
못 후 다 가 한 실 말이 를 찾으니 우리 나
라 말에 婦는 퍼 노리 라 후 고 朝는 아 침 이 라

후는 제천부리婦는 며느리 로쓰고 朝는 아
침으로쓰니 지금에 말은 혼썬는 며느리라 후고
글로며느리라 써는 처수를 너를 썬는 며느리라
후니 이는 너의 본음을 너스고 나로 그릇봄이로
되견에는 말을 설아며느리라 셋음을 인즉 그
후외 본음이 너에 갓잡은 소리요 나의 상
관심은 음의 줄을 짐작 할이라 아실말이
를 알고 화실흔 증거를 알랴고 들을서 나

문이 어나 화 一 의 합음은 반도이 잇어 알
 러 인 주 一 ㄹ 卜 라 후 면 一 의 합음은 업소
 지 라 엇 자 반 도 이 잇슬 一 의 합음은 업스
 리 요 이 우 에 말 흥 과 른 아 一 가 一 에 갖 잡 은
 음 인 주 이 두 연 류 로 一 가 반 도 이 一 의 합
 음 이 리 라 후 더 너 십 구 혜 갑 오 정 율 에 비 로
 소 華 東 正 音 通 釋 을 언 어 본 주 卜 조 살 에 는
 阿 正 로 음 을 달 고 卜 조 살 에 는 思 초 不 用 聲 으 로 달

앗가로 ㅏ 의 음이 셔로 들으면 그 알에 도
다른은 조로 음을 달았슬러 인디 그 알에 달
음이 들지 안이 ㅎ나 ㅏ 의 음이 셔로 들지
안이 ㅎ은 가이 알지라 그러나 근리 조篇에도
思 조음을 사 조로는 ㅅ스되 근리에 思 조음을 너
는 사 라 ㅎ나 근리 너는 思 조음 디로 사 의 初
聲 ㅏ 음을 不用 하면 ㅏ 나 이 러 케 근리 너는 思
조음 디로 들어 보면 ㅏ 가 ㅏ 와 ㅏ 들은 지라 이

와플아^나가^나달을^것이^업시^면웨^나
 알에^다들은^조로^그음을^할지^안이^고나
 에^는阿^로달고^나에^는근^식근^게思^{初聲}
 로^달앗^으리^요지^금음^편에^도阿^조음^은나
 로^달고^思조^음은^사로^달앗^는즉^전에^부더^터
 나^가근^자안^이추^여는^원리^영흔^음디
 로^思^{初聲}음^은로^달앗^는이^나思^조분^음은^사가
 안^이리^라고^한어^자알^는이^세계^思조^음을

물은 즉 한음에思는 스를이근기로아제아
조위심을과하너지금은사의본음을본
은고로한어배호논이들의思것음을사
의근사호조스로달되사가스도아나라고
실상은식의의참음이니사의의합음에서
을생면一一의합음됨이라이러흔중거
들도가가一一의합음인줄학살이알고
이논의심을과하엇스나但通釋에가

그리고 비스도 八조만 초종형에 통용하고
기타 모든 것은 八조는 초형에 단산라호지
라이를 보매 큰 의심이 나는 것은 이서도래조
달은 합음들과 쌍음들이 종형에 쓰이는
말들은 본명의 습관이라 무슨 음이던지
초형에 쓰이면 반드시 종형에도 쓰이는 것
은 조형으로 리해하는 데는 아예 도래조는 종
형에 쓰이지 안이 한다 함은 그 러 차 안이 조를 줄

로알되이글은문조가잇는중이장음을
이쓰이느것을달은사람에게알게함민
게후로길너더욱막혀큰일에국문장못쓰
느속습을표경하여올게쓰자는일에이
조음을로느큰히가되는지라이일로달
러말호말큰척이잇나후며국분에관계
되는서적들을적자악게구함여보앗스
나이내이것에과후되논문조는아직얼어

보지 못함으로 이 뜻을 왜 : 히려 지 못하나
이 뜻을 지어 코이루어 보고 자 후는 마음을
근치지 안이 후여 쓰다 지분학이 는 선심
들 가 국본에 유의 후는 이 들을 더욱 찾아 보
이러치 안이 후는 후로 뜻함을 말 후여 그의 견
을 물으며 이 신일 세 병신에 여러 벗 들을 권
하여 국본 등식 회를 조직 후 다 가고 경 영
성취 후 지 못함 후 국본 식 일 편을 찬 술 후

기름을 시작하여 익혀서 기름에 대강 맛취하여
벗어찌 보이므로 국문의 고하 장단을 분별
한 술이 엽음을 섞어 하녀이다 가이 때에
독립 협회 : 보에디 용촌 석영 씨가 국문
고하음에 평채 분별은 음의 있다 는 것을 보고
우짚버려서 고임인 평월 십사일에서
저김천 생전 드르 용촌은 디고 상을 찾아 보
고 이후 불어 풍 : 국문으로 다소의 문이

맛있고 한어표소호문위를 찾아보고
석국문에 단한음을 들을다시
어보고도 이리저리 너래리
별문자를 볼수업고 의견을
을바 이업서 다만 훈민정음
더너을수년여름에디고
에실린훈민정음을 찾아내
등지한것큰이각^자음을
아보

탁도달 되키실은 탁도안이 오티스 의 함음
이라 그러는 즉 는 통석이나 조 회나 혼
민정음에 다 1 1 의 함음 됨이 분명하
나 이제

성왕의 문자가 본리에 는 었던 자음들은 초
종성에 통용하고 었던 자음들은 초성에만
쓰라 훈이 안이 어늘 기고 스 △ ○ ○ ○ ○ ○ ○ ○
를 초성에만 쓰라 훈은 초성에 그릇 됨인 줄

을 깨듯겠고, 는 통석해석지도 원음대로
올리게 알았노디 근 리 붙어 그 후 나 리 음인 줄
알겠도 다 각 자 음 들 은 호 민 정 음 디 로 초
종 형 세 다 통 용 상 여 야 말 과 글 이 상 좌 되
지 안 코 법 과 음 이 다 함 당 할 터 이 니 국 부
을 오 르 게 받 달 할 은 조 음 은 증 거 요
성 왕 분 조 의 분 원 을 회 복 초 여 말 큰 가 의 호
린 폐 를 막 하 리 니 희 니 큰 다 힘 아 로 다 엿 지

래 후고 깃 부 자 안 이 후 라 요

이 를 보 면 는 통 석 해 서 지 의 창 음 으

로 알 다 가 근 뒤 에 말 은 후 는 의 사 는

의 합 음 으 로 으 르 게 도 후 고 후 는 이 라 후 며

후 나 라 도 후 고 나 라 도 후 뒤 를 볼 때 에 는

나 라 후 이 의 합 음 인 줄 새 듯 지 못 후

고 가 르 고 스 스 는 음 른 조 성 에 쓰 지 안

이 후 다 합 음 은 후 음 조 화 해 불 어 나 후 후 조

그절을어서작 후여오려됨인가보도마

이말에벌려쓴말들을보면기근프스스

후기의종형에도쓰이는말이분명이고

이말에느이_子즈음말이그종형에쓰여야

법이올름을부름을알리라

가령. 오도 오이 필 오우 오우 오이

말에더은뻗스와글으나그종형이즈음

이요서도^이는그뜻이雖^고조와글고의^고면은그뜻
이若^고조와글으나다^고조모음^고알에쓰는것이
요고는그뜻이而^고조와글고^고는그뜻이之^고조
와글으나다^고조음^고알에^고통용^고하는^고것인^고뒤이
는^고음에서^고도^고이^고러^고게^고쓰^고이^고오^고려^고은^고조^고아^고나^고이
를^고달^고어^고의^고알^고에^고려^고록^고흔^고것^고을^고보^고면^고어^고나^고것^고이
그^고말^고의^고원^고테^고와^고본^고음^고과^고법^고식^고에^고오^고려^고고^고름^고은
것^고을^고가^고이^고알^고라^고라

洗雖 씻어도 씻으면若 씻고而 씻는다之

法

씨서도 씨스면 씻고 씻는다

俗

씻어도 씻스면 씻고 씻는다

信

法 믿어도 믿으면 믿고 믿는다

미더도 미드면 믿고 믿는다

俗 믿어도 믿드면 믿고 믿는다

믿어도 믿으면 믿고 믿는다

法 任
말아도 말으면
말고
말는

俗
맛타도 맛트면
맛고
맛는

맛와도 맛흐면
맛고
맛는

覆

法
덮어도 덮으면
덮고
덮는

더커도 더프면
덮고
덮는

俗
덥혀도 덥흐면
덥고
덥는

덥머도 덥프면
덥고
덥는

列表

法 잇어도 잇으면 잇고 잇는

俗 씨저도 씨즈면 씨고 씨는

잇저도 잇즈면 잇고 잇는

從

法 좃아도 좃으면 좃고 좃는

俗 조차도 즈츠면 조고 조는
좃차도 좃츠면 좃고 좃는

好

法 좃아도 좃으면 좃고 좃는

俗 조하도 조흐면 조코 조흔

劑

法 삭아도 삭으면 삭고 삭는

俗 삭가도 삭그면 삭고 삭는
사하도 사그면 삭고 삭는

우리말에 어도 와 도는 다 붙은
뜻한 데 어 도는 ㅏ ㅓ ㅕ ㅑ ㅓ ㅓ
알에 쓰이고 아 도는 ㅏ 그 음
잇는 조알에 쓰이 나 라

우리말의 음 뒤로 洗는 씻이요 信은 믿이요

任은말이요覆은 덮이요裂은 찢어지니요從은
뜻이오好_容形은 좋음이요劑은 약이며어도와
으면과오와느은이부며 嘔는출에히설음
글이다각오숫의소리흔저어늘그원티
와분음이다각오이러흔은불계흔고호
에서그릇삼이우에떨룩흔것과글스나엇
지리혀흔배오안이리요이는다옥에서人
드고入은기흔외등느를종성으로작

분간치 못할뿐 아니라 이 것들을 종종 형
에 쓰지 안이 됨으로 이르러 폐단이 생겼도
다. 이 히라한 것은 통유에 박음과 쌍조음
과스도 통조가 종종에 업스되 우리 말에 는 이
런 음들이 다 종종에 도잇스나 이를 가히
알바는 웃조의 종종에 말을 짓치고 음기
지 안이 흘려와 조음을 맞날 때에는 스도
드스조음 통조가 서로 분별 업시 놀리 기

알고 고르는 비를 고기는 파를 게 되나 모
음을 맛나 그 음이런 초여 받은 초면 다 각
본 음을 들 어 내 나 이 러 흔 거 은 연 연 의 리 세
라 이를 보 면 우 리 말 좋 성 에 는 스 드 스 스
프 흥 기 동 음 들 이 각 달 으 게 쓰 음 을 반 도
이 알 겿 도 다 말 신 지 변 초 면 이 어 나 와 말
은 변 초 안 이 초 고 말 에 쓰 지 초 음 들 을 문
초 에 는 억 지 로 쓰 지 안 이 초 나 엇 지 말 과

문주가 상좌 되지 안이 하며 법식에 합당할
수 잇스리요

이우에 법이라 하면은 어음과 본례와 법
식과련득 連續 함이 다름은 나속이라
하든 줄에 써서도, 미더도, 마타도, 더의도,
씨저도, 조차도, 조하도, 류 類 是 連 續 하
노 음은 울으나 우는 종성을 알엇조
성으로 옮겨서 썼은 씨가 되고 만은 미가

되고 말은 마가 되고 열은 더가 되고 셋은 셋
가 되고 조는 조가 되고 줄은 조로 변한 셋고 어
도나 아도는 서도, 더도, 타도, 퍼도, 저도, 차도, 하
도, 로 변한 셋스니 상하좌의 본음과 원례를
다 알고 근본 그대로 각 쓰는 법을 아람음이요
셋서도 류셋은 올름스나 어도를 서도로 변한
셋스니 근본조를 아람엇고 이조를 련득한 변
씨서도 나 접후한 음인지 아람음이요

맛어도 느끼는 상하를 각기 쓰는 법은 이렇지
않이 후엿스나 이 말은 뜻종형이다 이어늘
런 듯 하면 미셔도 나점속후는 음선지인음
이요 답허도 느끼는 어는 청음에 던지음은 더
후면락음이 되는 것으로 후음의 합음은 꼭 고라
그런 것으로 이를 런 듯 하면 더 퍼도 나점속후는
음은 듣는 리지 안이 흐나 덮은 변후여 답이 되
고 어 또 는 변후여 허도가 되엿스나 그 본음과

원테를 변후엇고 본주대로 각 : 쓰는 법
서지 이름이 요 밋 더 도 닷 허 도 셋 저 도 조
차 도 류 는 그 원 흥 성 민 의 그 과 말 의 그 와
셋 의 그 와 조 의 ^것 를 모 도 변 후 여 스 으 로 만
쓰 고 어 도 나 아 도 로 변 후 여 더 도 후 허 도
후 저 도 후 차 도 가 되 엿 스 니 상 하 조 의 본 음
과 원 테 를 다 변 후 엿 고 본 주 대 로 각 : 쓰는
법 서 지 틀 렷 고 이 를 련 두 후 변 미 셔 도

마^삼삭도 써 써 도 조 싸 도 나 점 남 소 구 주 는 음 서 지
틀림이 요 삭 거 도 류 는 련 도 구 주 는 음 은
틀림이 없 스 나 상 하 조 의 본 음 과 원 레
와 본 조 대 로 각 2 쓰 는 법 을 다 이 려 음 이 요
셋 고 류 는 셋 의 품 이 본 리 스 인 즉 이 러 제 씀 이
올름 으 나 맛 고 맛 고 셋 고 주 고 류 는 스 드 드 스 스 가
후 의 에 어 스 즈 음 을 맛 나 면 각 2 그 음 의 분
별 으 를 드 들 어 내 지 못 하 고 높 으 기 만 하 는 고 로

런독후는 음은 틀림이 업스나 그원종성민
의고와말의고와셋의고와죽의고는 다
리고스으로만셋스나본음과원테와본조
머로쓰는법을다알음이오던고르기는모가
고의에어노조음을맞나면俗의셔나과르
치런독후나나그원종성업의모르변후
여남으로셋스나본음과본조대로쓰는법
은이런엇고샅고르기는기이공외에어노조음

을 맞나면 단 1과분별이 업는 듯 후나련

득후노음은 ^{오리}졸림의 업스나 그원종형

삼의기를 단 1만사스나 분음과분조

를사라산노법을 다아름음이라

이런즉속에서 이런말을 쓴은 원리와

분음과법식에 하나도오름을 것이 업고도

조모가불일하여 천만언을 사라변태후나

변잡음이 측량할수 업는즉이름다무쳐

발으게 하고 자라면 불가불법이란 줄대
로 줄 수 밖에 업도다

회^회라 후에서 몇^몇 되느^느 즈음을 풀^풀 형
으로 쏘이 버거 후고 싱 소^소 즈^즈 줄^줄 단^단 알^알 고
천 가지 말을 썬^썬 라 그^그 음이^이 르^르 리^리 여^여 체^체 가
변^변 국^국 여^여 법^법 을^을 찾^찾 을^을 수^수 업^업 사^사 되^되 노^노 것
은^은 변^변 잡^잡 후^후 고^고 제^제 되^되 는^는 줄^줄 을^을 새^새 도^도 지^지 못^못 줄^줄 이
엇^엇 지^지 어^어 리^리 석^석 지^지 아^아 하^하 리^리 국^국 라^라 오^오 실^실 을^을 고^고 치^치 고

뜻을 밟으게 하지 않으면 밤의 뒤에서 나
옆에를 면치 못하니 우리 머함으로
사실 이들이 여나라와 동포를 사랑하
여 환기 지식이라도 하여 모든 면서 절
로 앞과 우에 이르러이다

우라 나라에 스든 그스스거러 래로이
공심으로 소리 나는 말 들 각대 감과 록
어보이^는의 취하어 생각하기에 편이

계호노라

우리말의 소용형

씻 洗 實 矣 湧 拭 脫 拭 梳 矣 妻 矣 有 以上

吳 筆 矣 錄 矣 衣 矣 栢 絞 矣 餘 矣 以上

矣 炭 矣 及 矣 末 矣 刑 矣 味 矣 志 矣 吳 淵 矣

債 擲 光 矣 豆 或 矣 矣 天 矣 工 矣 免 矣 矣 矣 矣

송 矣 鉅 矣 矣 蒲 以上 矣 矣 以上

우리말의 소용형

우리말의 어종성

뜻 從 및 及 (并動)

우리말의 고종성

덧 覆 옆 側 (并動) 앞 痛 높 高 (并形) 앞 葉 앞 前 옆 側

우리말의 어종성

쌓 積 낱 生 (并動) 좋 好 (并形)

우리말의 어종성

삭 削 닦 修 엮 編 섞 雜 혼 混 (并動)

이상에러래로운후에^에서도흔이그러케
쓸줄알나니이경위로도이른우이보년
이상에지록종성들을이러케써야올
을줄알지어렵지만이후리로다

이상에논소리성실의대강과국문만들신
사적을조금말하고흔민정음과흔몽초
회를지록하여중첩에잘못됨과근리감
을흔을들어내고나의국문을연구후

단 뒤력을 대강 기록하였거니와 이 말
에 우리 글의 조모음의 분별을 대강 말하노라
조모음의 분별은 형질

모음은 스스로 알라 하노음이니 그 하강만
장형의 분별이 있고 조음은 각기 제구별
아조쇠 하도모음은 의지훈후에야 제음
을 드려어 내노니 청탁경충의 분별이 있
노니 모음은 모음이리라야 함하고 조음은

조음시리라야 함 후너 조음은 스스로 받
후되 조음은 반듯이 모음을 의지 후너
야 조음을 들어냄으로 조음은 모음에 합
후노 것이 안이요 조음은 모음에게 의지
후노 것이 나라

모음

모음을 구리나라에 서전에 중성이라 후
너이른모음은 조음가온디 있다 함이라

가령간이라 하면 나가니 가온디서 소
리가 나니 이는 증성이라 흠이 적당하
나야라 하면 나가니 풍에 소리가 나니 증
성이 안이요 약이라 하면은 도위에 도喻
음이니 有若無라 하면은 즉 나가면 적소
리나니 증성이 안이요 약이라 하면은 有若
無니 혼소리나니 증성이 안이라 이럼
으로 모음을 증성이라 흠이 적당치 못하

도다 그러나 이런 줄만 알면 일흠은 무
엇이라 하던 지 별로 모양 관업거니와 이런
줄을 쓰세히 알지 못하면 혼이그일흠은
글자의 뜻으로 그 성질과 실정을 믿어
짐작하고 믿는 교로 이 글이 말하노라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이 열한 자 국
문의 보음인듯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이 여섯 자는 다시 난훈

수업노수인인호모음인디이것이국

본모든모음의근본이요또가이런

디간지호모든모음분별의근본

이되노나라

F는11의합음이요

쿠는11의합음이요

그는11의합음이요

기는11의합음이요

· 논이기에 말흐과 른이 一의 합음

이요

· 문리로 말 후면이 줄에 음당 一

의 합음잇슬지라 그러나 一一의 합

음음은 一니 연문인고로 영노나

나 一 一의 합음이요

지는 一 一의 합음이요

나 一 一의 합음이요

가게는 그 하나의 함음이 아니며 기방 초

한 나라

점치는 법 호민정음 부러에 평성에

는 점을 치지만 이 후 고 거성에 는 좌에 점

하나를 치고 상성에 는 좌에 점 둘을 치

라 하엿스니 이는 다 모음을 분별 호미

라 말자로 말호 변어 누 말모음의 예스 음에

는 점을 치지만 이 후 고 기리음에 는 하나를

치고 더 깊은 음에는 돌을 침이나 천에 침을
본직가령(本直加令) 本直加令 사에 눈이러게 포후엇스
너이는 사세치 못후도 다 그 음의 길던지
철은 것은 다 모음의 분별이 요 자음에는
아모상관업스나 자음나 좌에, 르 더 함
을 치한 이 후고 반 뜻이 모음나 에, 르 더
함 이 음 으 나 라

또 이 점 치는 법은 겨우 모음의 장단만

판후는것이요 고쳐 광첩쓰지는 구별
치 못함이니 이 세 一은 점임은 것 가지로
다 저 세히 분별되노 줄로 알지 말
지어다

모음의 분별이 대단이 만아셔 장단으
로만 말 후드래도 여러 층으로 할 수 있
고 고쳐로만 말 후드래도 여러 층에 분별
할 수 잇고 高고고도 長상후며 高고고도 短단

후여^高고^高고^高도^廣광^廣후여^高고^高고^高도^廣협^狹후여^低
 저^低후고^高도^廣단^短후여^低저^低후고^高도^廣광^廣후여^低저^低
 고^高도^廣협^狹후여^長장^長후고^高도^廣광^廣후여^長장^長후고^高협^狹
 후여^短단^短후고^廣도^廣광^廣후고^短단^短후고^狹도^狹협^狹후여^短한^短
 모음의분별이대강이러후고도세 :

분별이더잇나라

ㅏㅑㅓㅕㅗㅛㅜㅝㅟㅡㅣㅥㅦㅧㅨㅩㅪㅫㅬㅭㅮㅯㅰㅱㅲㅳㅴㅵㅶㅷㅸㅹㅺㅻㅼㅽㅾㅿㅿ
 이라아모것도의지안교스소로소리

남을 이상에 저세이 말하엿거나 와 혼민
정음과 훈몽주회에 저모음을 부별하어
쓴디는 이 열 훈모음 초위에 아모것도 업시
ㅏㅑㅓㅕㅗㅛㅜㅝㅟㅡㅢㅣㅤㅥㅦㅧㅨㅩㅪㅫㅬㅭㅮㅯㅰㅱ
말이나 한 漢 자음을 귀류하디는 그 초위
에 이 표를 더하어 아야어여오오우우
이오로셋스니 이 모소리가 나면 못스
음이라 그러나 도하에 도은 喻音이니

有若無라 하였스니 즉 이 문는 어나 모음
초위에 더하던 지성형에 더하던 지잇는
것이 업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지 안이하
고도 혼민형음에 나는 탐 潭 潭 潭 潭이라
하였스니 탐조의 초형 ㄷ과 종형 ㅁ은 달
면 ㅌ나 ㅀ이 표업시 소리 나느니라 또 이
를 보아 드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이 표업시 소리 남이 분명하느니라 또 혼민

을듯호도다

우리의 글의 모음의 원소 素 源 是 下 下 下 下

一一 이어 첫 번째 이라 이 글이 간략하

나 모든 모음을 들라 씀이 무궁하여 과

록 지 못할 것이 업스니 우리나라에 무

등호보비선안이라 실로 예례에 큰 보

례요련하 음학을 비호노자의 큰 선성

이라 참 성왕의 높은 신지혜로이러게

종은 사업 후 심을 흙용 불이로다. 청
왕씨씨는 이 큰이 학본을 만 들어 주
섯거늘 후 씨에 잘 새 도지 못 후 고 힘 씨
힘 후 지 안이 후 이 우리 문언이 발 달 되
지 못 흙으로 달은 문언이 들어 오 라고
후 제 흙이 크게 붓그 럽고 죄 송 후 며 이
척 호 일 이 로 다

주 음

조음은 그 음의 구별이 저저 함되 스스로
받혀 들어 내지 못함고 반듯이 모음을
의지함 후어 야고 소리가 나나 나나 청
탁정중의 분별이 잇나 나라 함되 오와 고
훈민정음의 조음을 괴롭훈 초쳐 주모
는 좌와 들으니 웨이러 케 괴롭훈 잇는
지저세이 궁리 후어 불치어 닷 조음

조음은 그 음의 구별이 저저 함되 스스로
받혀 들어 내지 못함고 반듯이 모음을
의지함 후어 야고 소리가 나나 나나 청
탁정중의 분별이 잇나 나라 함되 오와 고
훈민정음의 조음을 괴롭훈 초쳐 주모
는 좌와 들으니 웨이러 케 괴롭훈 잇는
지저세이 궁리 후어 불치어 닷 조음

牙音으로

ㄱ ㄱ은 ㄱ의 탁음이요 ㄴ은 ㄱ과 합쳐 아음에 속하

ㅇ 션이요 ㄱ과 상판업고

음音으로

ㄷ ㄷ은 ㄷ의 탁음이요 ㄴ은 ㄷ과 합쳐 션음에 속하
ㄹ 션이요 ㄷ과 상판업고

唇音으로

ㅍ ㅍ는 ㅍ의 탁음이요 ㅂ은 ㅍ와 합쳐 션음에 속하
ㅃ 션이요 ㅍ과 상판업고

이 귀코를 보던 기는 디니 비코 스스 이리 스
이 열 두 자 가 牙舌唇齒喉의 各 그 所屬
으로 同類되는 分別은 잇스나 音의 層
은 同等이요

크는 기에 一 이 르는 더 흡이요

크는 디에 一 이 르는 더 흡이요

크는 비에 一 이 르는 더 흡이요 신의 모음은 둘라

크가 됨이라

차는 구에 이를 더함이요

강은 구에 이를 더함이요

△는 洪武正韻에 半徵 半商이라 함

것으로 표음잇고 근민청음에 齒音 商音

이라 잇고 華東正音通釋에 우는 곳

스우之間音 여과間音이라 함 이라 함

엇스나 스는 牙音이요 ○은 喉音이라 함

○린주스는 스 擬의 聲 의 합음이니라

全明黃瓊の所著韻會例三十五字母が

如左云々

全清見ノ端ニ封帛日非ヨ精又知又影又

次清溪ヲ透三滂正敷ヨ清又徹又曉又

全濁羣ヲ定又並ヨ奉ヨ送又澄又匣又

不清疑又泥又明又微ヨ嬢又喻又來又

次清魚又心人審人

次濁邪合禪人

次音

柳氏

大清 明高皇帝가 詞臣을 命하여 毛晃의 韻書

를 依하여 作호 洪武正韻에 三才一字

母가 如左하야

全清 見 端 幫 非 精 照 穿 影 滂

次清 溪 透 滂 清 穿 透 曉 滂

全濁 群 定 並 奉 澄 牀 匣 匣

不濁 疑 이 泥 니 明 밍 微 밍 喻 升 來 日 日

全清 心 審 心 審 心 審 心 審

次清도清이나 아 조清이 못되노故로
次清이라함이니 清이 못되면濁이 조
곰이라도 잇슴이分明하니 清치 못하
것은 곧濁음에 속하노라

△는訓民正音에穰字初聲이라 후잇스
나穰字初聲은東音이던지漢音이 다르
이라佛經에그이人의仁인荏弱而이弱
약穰양若야兒이이러케달았노뒤

上海音은

胡文燦는

日本音은

日 녀

녀

녀

人 녀

련

련

在 녀

련

련

而 열

열

녀

弱 사

렛

녀

穰 냥

량

뇨

若 사

약

냐

兒 녀

열

녀

이세곳음을달기를내게드린듯로나
는음을더후잇거나와후달은이의이
런음을답는것을본즉흔이음을더후
지안이후고그음과큰은술알나아마
음지안이흔이로다

이를보면△는렁거나녕거나소일터인
디해民正音에攘字初聲이라후잇스나
이셋中에랑가될듯후도다소근左에△

를載후엇스나 或次序規模로도근의濁

음이요

△가승이면빙이全清이라훈파글이스

가清음이될노지

訓蒙字會와華東正音에는訓民正音의

宮音의百이不是口의새고羽音에△합음

이不를더후엇고己이不是變徵半音음이

러계徵音行에좀間距후어下載후고△

나◇이 쓰는 일호음을 짓지 안이 후엇노디
近來쓰는國文이大概이를本말음이라
라

엇던子音은初聲에는침고終聲에는
어렴거나終聲에는침고初聲에는어
려은形勢는잇스되무슨音이던지初
聲에쓰이면반듯이終聲에도쓰여지
나니이八字를初聲으로만쓴다음은

訓民正音과 만틀릴 설이 안이라 현연훈
음법에 들림이 이로도다

기오디노비口스스고리

은有若無니여
지더후지안아음

이열조는 청음이 아니라 시난을 수엄시統
一호單音이라 이열조가 모든 국문子音
의 근본이 아니라

조도난호를 수엄음이라 호이不可치
안이라 나고보다락음으로 음은곳고

薄박荷하를連讀하면바카요조용그를連讀

면조코요

종다를連讀하면조타요水土수토를連讀

면승도외고入學입학을連讀하면이과이요

下品하품을連讀하면강분과고

종지안타連讀하면조치안타요馬車마차를

連讀하면몽자외고

가가百古의함음되는것은아직고만두거

나와의례이밀으니알지니라

중의형질은심히부드럽고성긴고로달
은스음우에서던지알에서던지련후면
先後相關업시다混合후너라

◇는訓民正音에는업는것인디口의
숨흡이리라

숨흡으로말후면각스가다숨흡이되

何必呂만異製후리호

前불이漢音의上步를下音에대고
의發호노소리을日과오을建書호어
후잇스니憑字의子音은것이나라

러이런不들은은셔로존지도안이후고混合
지도안이호는音씨리合호것인故로配
音이라호판후나라

무슨子音이던지셔로합호지안이호는
것이업스되其中쉬은것도잇고어려운

것도 잇스나 음뒤로 隨用하여 分合轉換
함이 지극지 못할 것 업나니라
唇齒聲은거북후고군식훈소리로 뒤 東
西洋에서 흔히 쓰나 나 곳 비이나 또 의 唇
齒聲이라 우에 말음과 글이 前불어 漢音
에 上齒下唇으로 비의 소리 내는 것을 비
으로만 달되 비에는 上齒下唇聲이 업
스나 비으로만 씀이 不可후 반듯이 齒

唇聲母가 잇서야 훈은 지라 근 뒤 훈외 구구 齒
唇聲母은 〇으로 표함아 잇스니 이는 그를
본 발음이라 〇이를 訓民正音에는 喻音
아라 有若無니 이것으로 표함이 不可호고
이저의 소리나 는 것으로 말호면 唇齒聲
에 조곰도 상판 업스니 佐 不可 훈지라
故로 象形호어 ㄴ이 표를 特別이 만드어
齒唇聲母로 通用호자 호 잇노라 외 람 齒

을 피치안이 흠은 특별한이 용랍 후어 어
 일어던지 백 단 분에 하나라도 오날에 취
 서 됨과 보부족 됨을 키이 녀임이 가후지안
 이 후리요 나 의 齒唇聲은 ㄴ, ㄹ 의 齒唇聲은
브(베리) 각子음의 일인 흠을 후은 衆音으로
 짓고 후은 單音으로 지어 그 牙모가 다 여
 일치안이 후더리도 그 쓰는 것은 한 음선
 인고로 일 흠의 엇더 후은 것은 상 관 흠 것이 엇

스나그일은 음의善不善을擇후야그일음의
^소임에대일합당음을取음이可호는지라
子音中에더리는初聲으로發音후기는
先후되終聲으로는거북후거나군석후
거나변후는폐가잇고終聲으로는先후되
初聲으로는거북후거나군석후폐는잇슬
지라도무슨子音이던지初終間에못쓰이
느뒤가엎스며호우리국문子音字들이

우리국에終聲에 안쓰이는字들이 업
거늘訓蒙字會에 국문子音字들은엇던
字들은은두음으로일홈지어初終聲에通用
홈을뜻후고엇던字들은한음을일홈지
어初聲에獨用홈을뜻후엇스니이큰엇
지合當후다후리오
訓民正音에는各子音字를各一某漢字
의初發聲과 같다후시고終聲에도復用初

聲이라 후셋스나 각 자음들이 다 初終聲
에 通用됨은 여기도 分明흔지라 疑端이
업슬썬안이라 初終에 通用후어야 音義
에 合當후고 所用에 拘礙됨이 업는지라
世宗朝의 漢字로이러케 音을 단것은 그
子音字들의 일음으로 불으기로 셋후심
이안이요 憑據만삼자후자후심이 라흔
터이나 빙거후어 불으자흔즉 곳일음은

되는지라 그런고로 별한 알음음들이 리음이
可후다 저 리음이 不可후다 후지 말고 訓
民正音을從후어
↑이 쓰는 子_君의라 기이 쓰는 配_狀라 〇
餘는 倣此로 알음음에 붙은 음이 不可치 안
이후고 複雜音은 幼兒들만 發音후기
가 어려울 뿐 아니라 長成후이라도 初學
으로는 甚후받음후기 어려은 速받음후

기도침고간단후고귀모잇게기가혹각
후가혹그나혹난혹나혹느이러게
餘做此후어이중에서어는것을하나擇
후어쓰던지訓蒙字會의일흠디로써르
트리도어는던지다初終聲에通用후
고그일흠을두는로후면다두는로후고
찬는로후면찬는로만흠이可후겟도다

近日에 國文子 音字들의 일흠을 甲은

이리하고 乙은 저리 하고 丙은 또 달리 하고
어일 덩은 길 이 업시 점 二 문란 하여 단
가 나 일 국 사 회 에 부 른 老 少 貴 賤 男 女
하고 日 二 時 二 日 二 時 二 日 二 時 二 日 二 時
엇지 丑 모 잇다 亥 리 요 丑 호 호 成 皇 文
스 를 천 명 하 기 고 사 호 고 配 단 만 단 돌
언 엇 제 위 달 지 안 이 후 며 言 語 思 想 禮
節 習 尚 等 事 도 다 아 모 조 록 글 게 하 는

것은 그야 회를 일심단테 되게 하는 것이
어른전국이 다 글이 쓰는 문자에 이 글이
성기고 불일음은 차아리 말을 말고 자하
노라

접변

接

서로 접하면 변하는 자음들

이 말에서로 접하면 변하는 음들을

簡略히刻錄하노라

가 이 이 나 큰 이 나 口 우에서는 〇으로

口의 기우에서는 후口으로 변호는 나(本)
감기(感氣) 심기(事) 다이는 속에서 이레(氣) 불은 으
는 것이 나분음(音) 뒤로 받출 수 잇는 것인
디 이레(氣) 변호(音) 도얼(音) 마(音) 김(音) 련(音) 연(音) 의(音) 리(音) 세
로(音) 쳐(音) 되(音) 는(音) 것(音) 이(音) 나(音) 라(音)

、日의 기(音) 나(音) 리(音) 이(音) 나(音) 리(音) 우(音) 에(音) 서(音) 는(音) 口(音) 으(音) 로(音)
변(音) 호(音) (本) 십(音) 년(音) 십(音) 리(音) 각(音) 십(音) 만(音)

、人의 기(音) 이(音) 나(音) 리(音) 이(音) 나(音) 리(音) 우(音) 에(音) 서(音) 는(音) 口(音) 으(音) 로(音)

변(變)을(은) 본(本) 여(여)섯(섯)리(리) 잇(잇)노(노)나라(라) 갓(갓)모(모)

자(자)나(나)다(다)이(이)나(나)고(고) 시(시)이(이)나(나)고(고)이(이)나(나)고(고)

우(우)에(에)서(서) 시(시)으(으)로(로)변(變)함(함)

고(고)이(이) 농(농) 회(회)에(에) 달(달)은(은) 새(새)음(음)알(알)에서(서) 시(시)으(으)로(로)변(變)

함(함)

고(고)이(이) 농(농)성(성)으(으)로(로)갓(갓)치(치)면(면) 그(그)음(음)이(이) 쌍(쌍)리(리)과(과) 큰(큰)

온(온)데(데)이(이)는(는)우(우)리(리)나(나)라(라)에(에)습(습)이(이)나(나) 농(농)성(성)으(으)

로(로)單(單)은(은)음(음)을(을)받(받)추(추)자(자)면(면) 좋(좋)거(거)부(부)호(호)연(연)고(고)

나라 사람도 같은 말을 쓰지 않음은 물론이다

드, 人, 不, 文, ㅎ 가 각 ㅎ 동성으로 음을 짓

치면 다 같은 누르키만 후고서로 많은 음

이 들어나지 안이 하며 뜻다스 밧침호 것파 같은나라

歐洲말이 더러움을 초형이나 품

성에서 그 즘음에 母音 一를 합하여

발음 흡은 音義 뜻음 에 대단어이 는

일이더라 彼人들은 그런 것이 안이

요즈음만 소리가 난다 후나나 듯기
에는 **가** 점 찍었더라
가, **디**, **비**, **스**, **지** 는 달은 즈음 알에 려 후면 그
음이 된 듯 후나 이 는 그 웃 즈음 의 누르
는 세 려 을 받 음 이 나 라 이 다 섰 즈 음 외
이 달 은 즈 음 들 도 놀 리 는 형 세 가 업 지
는 안 이 후 나 이 다 섰 즈 와 는 글 지 안 이
후 것 은 좀 강 후 거 나 락 후 연 고 나 라

같은 으뜸새리련후면쌍음이되나나그
런고로모든 으뜸들이어는것이던지
쌍음되지안는것이업느니라

가 가 소 가 가 사, 나 소 나 가 사, 다 다 소 다 가
르, 리 리 소 리 가 르, 오 오 소 오 가 르, 비 비 소 비
가 르, 인 인 소 인 가 르, 오 오 소 오 가 르, 자 자 소 자
가 르, 차 차 소 차 가 르, 카 카 소 카 가 르, 에 에 소
에 가 르, 오 오 소 오 가 르, 방 방 소 방 가 르, 방 방 소
방 가 르, 방 방 소 방 가 르, 방 방 소 방 가 르, 방 방 소

노나라 (본) 업고 노현연의 음이 노나라
업고 가 될 리 인 뒤 우리 국어 연습으로
는 업고 라 후는 것 들은 것 들 과 덮으면
은 업고 면 이 라 발음 후는 것 들은 것
들 이 나 이 는 곳 고 를 다 소리 범 이 라
스디스字는 달은 자음우에서 서로 달음
업시 누르 기 만 하 며

스디字는 달은 자음우에서는 음義이로

은그후, 그후와같이 소리가 날터인디
우리말 연습에 또 혼누르기만 하며

入) 좃고는련연의 음뒤로 좃코^코가 될터
인디 우리국어 연습뒤로는 좃고 못
좃고가 되며 말고는 말코라 할터인
디 말고 못맛고가 되느니라

은그달은 그 음우에서던지 알에서그점
은 그 음에合하여 락음되게 하느니라

子音의 서로 접하여 변하는 음을 머강이
만 음 말하거니와 별로 더 알출 것도 없고
이 외에 다른 첨변은 다 이를 믿어 두면 물론
리리라

우리 국어에 예 접의 無音

나이나 근이나 합음 ㅅㅈ ㅈㅅ ㅈㅈ

1의 初聲이 되어 말머리에서 시작하여

이 되어 말머리에서 시작 하여 발음할 때
에는 ㄴ으로 변하여 ㄴ나라는 나라 라는
나라 라는 나라 라는 나라 라는 나라 라는
나라 라는 나라 라는 나라 라는 나라 라는

어 ㄴ子音에던지 先後不拘 ㅎ고 ㅎ가 連接

하면濁音이 되나니 이는 ㅎ의 性質이 柔

疎 ㅎ어 某子音과 連호 則 混合 和音 이 나라

ㅎ外에 各子音이 相連호 則 其 先後次序 勿
로 如疊호 且 混合지 안나 나라

國文是我 世宗例什親이始製古字은世所共知立各史傳
例互亦有詳載이든或은 世宗以前불어諺文이出於佛家
과古나此는 世宗例什國文意始製古字새或有依倣梵
書之模互藉口호민가보고或은新羅薛聰이諺文意始製
古字다古古或은自古로佛家에諺文字가略有而薛聰이
補正古字더니 世宗例什又改而作國文이라古나學易
辭의訓及正音序文意是則薛聰은但倣字而作史讀且曾
無國文之所製를亦無疑可知며正音二大字之我 世宗
例什始製古字을亦無疑可知리라抑或若干諺文字自
古有之라호지라도空海無稽古字슬러이니何可籍是而

正音二十八字を謂非

世宗之始製文字裁也

地球上에 陸地가 天然으로 分^士호여 五大洲가 되고 五大洲가 任 天然으로
分호여 여러 나라 境界가 되니 人種도 이를 件라 黃白黑扶赤으로
分호여 五大種이 되고 五大種이 任 分호여 그 居位는 甸域대로 各
各 氣는 지라 그 天然의 境界外 人種의 各異 音을 件라 그 水土 風
氣의 稟賦도 各々 그 人種이 初音으로 發聲 辨別어 自然發音
되어 그 音으로 物件을 일 音과 그 意思를 표후어 次々 그 社會에
通用후는 말이 되고 그 말에 合當호 文字를 지어 쓰며 或은 그 말은
相關호 사 物件과 意思를 表후는 文字를 特別이만 들어 쓰니
이 是 埃及에 埃及말과 글이 잇고 羅典에 羅典말과 글이 잇고

亞拉에亞拉말과글이잇고波斯에波斯말과글이잇고印度에
印度말과글이잇고蒙古에蒙古말과글이잇고馬來에馬來말
과글이잇고支那에支那말과글이잇고滿洲에滿洲말과글이
잇고日本에日本말과글이잇고우리나라에우리나라말과글이
잇슴과글은것들이니이러케그말과글이各々各々지안이호

지라

말과글은意思를發表케이그社會에行하는것인故로말
과글이各々지안으면그社會도달_不스니그社會가天然의달음으
로自然自立됨을特別이表하는것이꼭그말과글이라世界모든
나라들의말과글이各々이러케自然言지안이호디그중데일

남의 行方는 것이 거진 八十種이나 되는지 東洋을 우리 나라
말과 같이 그중에 하나이라

社會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聯合하며 그 생
活을經營하고 보존하기에서로 依賴하는 因緣의 한 團體라 말과
같이 생각하면 이것을 서로 통하며 그 뜻을 서로 통치 못하면 이것
지그人民이 서로聯合하여 이런 社會가 成樣되리요 어렵으로 말과
한 社會가 組織되는 根本이요 經營의 意思를 發表하여 그人民
을 聯絡케 하고 制作케 하는 機關이라 이 機關을 잘 脩理하여 精
鍊하면 그 動作도 敏活케 할 것이요 脩理치 않으면 그 魯鈍하면 그
動作도 窒礙케 하니 이런 機關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社會

隸가 되는 者는 이 로다 말 할 수 업 거 너 와 아 메 리 가 와 아 프 라
가 와 대 洋 洲 에 러 러 지 域 에 各 그 地 方 말 이 잇 스 되 말 이 다 零 星 古
古 或 은 古 도 잇 스 나 古 이 何 處 疎 隔 후 더 니 現 今 에 天 下 何 處
通 古 이 그 生 活 을 爲 古 는 競 爭 時 代 를 當 古 매 르 드 그 疆 土
을 他 人 에 게 見 棄 古 丑 人 種 도 거 진 滅 古 지 라

噫 라 天 下 勢 波 의 所 及 은 空 氣 의 所 及 과 같 아 空 氣 가 업 는 곳
에 는 달 은 空 氣 가 浮 들 어 와 서 차 이 고 空 氣 가 稀 긴 곳 에 는 다 諸
是 密 氣 가 侵 入 후 어 그 本 所 의 疎 氣 를 逐 아 날 려 보 범 은 理
勢 의 固 然 乎 이 라 此 氣 가 自 疎 차 아 니 古 면 他 氣 何 能 自
侵 入 후 리 요 其 氣 를 自 疎 古 고 다 만 他 氣 의 侵 入 古 을 恨 古

는者진실로이리석도다至今歐美에隆盛호나라들은各
그나라말과글을根本으로崇尚호고脩正호어그人民은
이런새불어發音書를받으게호며國語를가르치되
讀本文法字學音韻解式作文等科를二三十冊을뜻가르
치며各種字典文典教科書가極히具備호되호되려不足
호가念慮호어이것을具치고새것을더호며다스리고便
다스려서所用에맞당호도록호고너二書도록호어千萬
가지書籍을다國語로著述호고繙譯호어國民을利
益與進호거늘
我東은自古로方言이잇스되書은엄히고되지못호言

語를 다만 입을 서로傳去다가箕子一東渡 후 後로漢字
를略習去되아는者甚이적고高麗와我朝에至去어漢
文을多能去여自幼로至三四十步의專力去되能히諸書를
다解去고能히그意思를述去어그效驗을보는者一百에
하나이 못되니이는말음안이라漢文은他邦출인故로이큰
이배호기어려오니라全國의모든선비가一生에두번오지안는靑
春을여간漢文字를호기에다虛費去고何暇에말은것을배
화가지고말을호리요그말은百姓들은學文이무엇인지도
아지못去고何말제去기드어려온지라엇지그나라에知識과事
業이發達될수잇겠고요聖國去신우리世宗大王께서이

를 淵慮^스사 我東 天然의 土音 디로 正音을 始製^스여 上下
智愚 貧富 貴賤 無論^스고 本國 말을 記錄^스어 學文 是 訓
究^스기 에 習^스도록 고 쓰기 와 알기 에 便利^스학^스거늘 後生을
이이 俟^스을 반 아 疇^스치 안 이고 고 注意^스박 에 더 利^스두어 如^스干 쓰이는
것 도 誤解^스誤^스書^스는 弊^스가 만은 지라 四千餘年 開國^스호 二千萬
衆 社會의 言語를 習^스으므로 傳^스호던 것 도 심히 不^스그럽 거든
國文 年 지 四百五十餘年 에 語典 하나 도 無^스지 안 코 다 만 어려운
漢文 만 習^스삼 아 全國 人士 一 다 歲月을 虛^스送^스고 아 모 것 도 아는
것이 習^스습 으 로 今日 에 이 地境 에 至^스호 엿는 지라 못 노니 지금 有
志^스후 신 이 물 이여 教育^스호 너 已 往 漢文을 잘 배 호는 者^스에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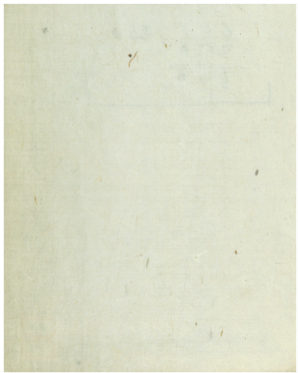
教育과 자흥이 안이겠고 50년이던지 20년던지 다 漢을 가
루친 後에야 諸般學識을 가르치고 자흥도 안일지라 그러
면 英語나 日語로 가르치고 자흥도 英語 日語를 뒤알리요 또
漢文배호기보다 더 어려울지라 지금 같은 世上을 漢文이 特
別이 英語배호는 者와 日語배호는 者와 德法等語를 배호는 者
도 잊혀야 할지라 그러나 全國人民의 思想을 들리며 智識
을 열여 주랴면 不可不위는 國文으로 各色學文을 著述하며
續譯하여 가르칠 수 밖에 업는지라 그러나 國文을 脩正치안
으면 쓸고 부딛는 것으로나 무를 버림과 곧 쓸지라 漢文이 우리
가지금 이런 情狀에 至한 것은 우리가 반듯이 할 모든 일을 할

지알이후고스스로글을읽어본연고라누구를보다후며누구를
원망후리요다만엇지... 하나말만흥은살뒤업스나한가
지식이라도... 흥이실상이라한가지식곳치고만들어
렸을모으면나라일이다잘될지라이름이되면기능이업
수이역이리요지급우라나라에時意히更張흥일이만거
나와國文을修正호출일이最意하고重要호지라그런고
로余十七八歲로불어이름을念慮후어엇지후어야잘될
가후고國文字로말호출을더러求후어보고國語窮究
후기를未嘗不게르케후지안이후게후엇스나愚者도
千慮면必有一得이라후나余는愚之最愚者인故로幾

千慮에 두어 一得이 있는지 不解하며 外이 제 그 糟粕이나 所得이 있는 듯 함으로 國文 同式會를 規設한다
가 誠力이 不足하였던지 同意하는 이를 黜로 보지 못
하여 그 失을 이내 黜유지 못하고 다시 엮지 못하면 國文
이 脩正될가 設力하나 佞은 效驗을 보지 못하고 不
得已하여 다만 余의 所有로 學生에게 教授하다가 其
餘紙를 收編하여 이는 音理만 大綱말호 것이요 國
語는 次期에 教授코자 하니 余一이러게 함은 國文
의 한어 류광도 노릇이나 후고자 함이라 高明하신이
들은 一일로 조차 아구리 文言을 연구하고 修正하여 活敏

호機械를만든어天然的便利호우리말과우리
글로우리東半島우리人民에게여러學文을다
살가르려文明富強이우리社會에充滿호어外
勢가侵犯호곳의압제호고호우려
皇上의德化와나라의威權이世界에넘치게서
지후기를간절이비노이다

光武十年六月日尚州周時經識



600 400

250

850

서략

501

13500
 7600

 21100

500
 600
 700
 200
 500
 500
 500
 300
 700
 200
 500
 300
 500
 400
 200

500
 300
 000

1400

193

5000
 3000
 2000
 2500

13500

T
 910

